

지청천 장군의 일대기 통한 항전의 역사

지복영 여사가 펴낸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최근 출간된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문학과지성사)는 무장항일투쟁의 중심인물이었던 지청천 장군의 일대기를 통해, 침탈의 아픔과 오욕만 강조되던 일제 36년의 역사를 조국광복을 위한 피나는 항전의 자랑스런 역사로 환치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이 책은 필자 지복영씨(75세)가 지청천 장군의 딸이며 직접 광복군에 종군, 총사령부 비서로 복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부친의 묘소에 참배를 하고 잠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보면 어디선가 함성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함성이란 혼자 소리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 소리는 과연 누가, 무엇때문에 지르는 소리인가 하는 것이 내 필생의 과제가 되었지요.”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 태어난 저자가 그 함성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처음에는 부친의 전기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들을 읽어보면 대체로 객관성이 결여되고 과찬이나 미화된 부분이 많아 좋지 않더군요. 되도록이면 근거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흘린 분들의 면면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싶으니 마음이 바빠져서 글쓰기를 서들렀지요.”

개인의 행적이 곧 시대를 읽는 독법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극심했던 무더위를 이기고 탈고한 이 책은 큰 줄기는 분명 지청천(池青天) 장군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만주를 중심으로 벌어진 항일무장투쟁의 면모를 밝히는 데 더 힘을 쏟고 있다. 기술방법 또한 각종 문헌이나 신문, 백산의 일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제시하는 한편 필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한 판단도 아우르고 있어 이해와 흥미를 함께 제공해준다.

백산 지청천의 출생과 성장으로 첫 장을 열고 있는 이 책은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그의 무장항일운동의 장정을 순차적으로 쫓고 있는데, 이를 비교적 굵직한 행보만으로 간추려 보면 신승무관학교(1, 2장), 서로군정서(3, 4장), 고려혁명군관학교(5, 6장), 정의부(7, 8장), 한국독립군(9, 10, 11, 12, 13장), 광복군(14, 15, 16, 17장), 해방 후(18, 19장)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자는 백산이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현대적 군사기술을 익히고 실전경험까지 쌓은 뒤 군을 탈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조국을 등지고 압록강을 건너며 푸른 하늘처럼 ‘대공지정(大公正)’ ‘공평무사(公平無私)’ 함을 생각하고 청천(靑天)으로 이름을 고치는 대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사투 비장함을 느끼게 한다.

백산의 항일무장투쟁은 신홍무관학교를 설립, 군관 인재양성을 위해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저자는 신홍무관학교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뿌리도 1906년 국내에 조직된 비밀결사조직인 신민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독립운동의 각 단체나 분파를 갈등관계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능별 역할분담 체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로 전개되는 항일투쟁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이 책에서는 1910년대 만주 전역에 산재했던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을 남만주와 북만주 지역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놓고 있어 당시 상황을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923년 2월 2일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듯하다. 즉, 국민대표회의는 공산주의 운동을 통일시키기 위해 서였는데 여운형의 일크스파와 이동휘의 상해파로 대별되는 창조파와 개조파로 분열되어 결렬되었다는 견해와, 사회주의(창조파)와 민족주의(개조파)의 통일운동이었으나 대립으로 인하여 결렬되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러한 설명이 한가지 요인은 될 수 있으나 당시 독립운동지도자들의 대동단결 의지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창조파와 개조파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파악하는 것은 그 인적 구성의 복잡함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역설하고 그 인적 구성의 내용을 낱말이 밝히고 있다.

여하튼 독립운동은 분열지향이 아니라 통합지향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로, 항일투쟁 단체들의 통합노력은 끈질기게 지속된다.

독립운동은 분열지향 아닌 ‘통합지향’

“1920년대 후반의 대일 무장투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연구는 없습니다. 아마 자료 부족이 그 원인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있는



지복영 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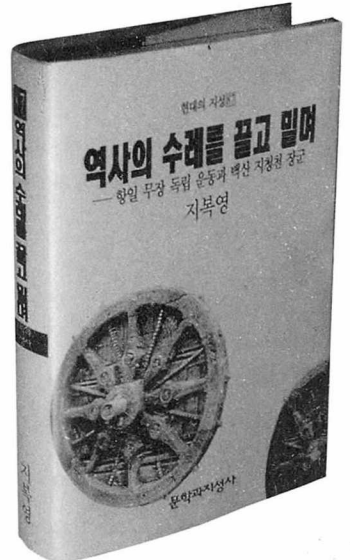
흔적도 지위가며’ 활동했던 만주 독립군들의 간고함을 고려할 때 대일 항전의 선봉에 섰던 무명 전사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의부 의용군의 무장활동을 신문과 여러 문헌들을 들추어 표로 정리해놓은 필자는 1920년대 후반 무장활동의 의의를,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강고한 독립의지로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1930년대 한 중연함에 의한 대대적인 항일전쟁의 기초를 형성했다는 데서 찾는다.

“왜적의 이번 발동은 다만 만주 침략에만 그치지 않고 장차 산해관 이내 중국대륙과 기타 지역까지 침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독립의 계기는 여기서 짝뚱하게 마련이다.” 1931년 만주사변에 직면하여 백산이 전망한 정세이다.

이러한 전망하에 결성된 한국독립군은 쌍성 전투, 경박호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녕현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하면서 큰 전공을 세운다. 한국독립군의 항일전의 특징을 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국독립군은 한국독립당의 당군으로 민족주의 이념에 따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무장세력으로, 중국 동북의 반만항일군과 공동으로 항일전을 수행했습니다. 합작을 통해 물자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념적인 성향이나 작전에 대한 견해, 군수물품의 분배로 인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독립군은 경우에 따라 군을 해산하였다가 상황이 호전되면 재조직하거나 징모하는 의용군이었고, 전술도 정규전의 형태와 변칙적인 비정규전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독립군의 무장활동은 그후 독립군 출신 주요 장병들의 항일 무장투쟁에도 기여하여 ‘광복군’으로 대표되는 1940년대 민족주의 무장세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역사적 의의라고 밝힌다.

부친은 ‘참다운 무인’

얼굴을 마주하기는커녕 편지 답장조차 흔치 않던 부친이 나이 어린 딸의 광복군에 종군하고 싶다는 편지에 그러라고 당장 답을 보내왔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필자는, 부친이자 상관이었던 백산을 “1910년대부터 광복 전까지 끈질기게 이어졌던 항일무장투쟁의 길에서 단 한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는 참다운 무인(武人)”이었다고 회고한다.

부친의 묘소에서 자신의 귓전을 때리던 함성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부친의 일생을 큰 줄기로 선택한 것도, 그의 삶이 어느 전장에서 이름도 얻지 못한 채 쓰러져간 항일전사들의 피를 욱되게 하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된 조국 땅 어느 한 자락에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석탑 하나 없는 실정이 안타깝고 죄스러워 마치 그 답을 쌓는 심정으로 10여년간 도서관을 뒤지고 관계문헌과 자료들을 찾아 모았다는 그는, 건강과 경제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것과 현장답사를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 한다.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들이 밟아 디디고 사는 이 땅이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그는 요즘, 경술국치일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굴뚝에 연기를 내지 않았던 만주에서의 생활을 글로 엮고 있다. <박남정>